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가슴엔 꽃, 사랑의 경로잔치

오늘 찬양예배 때 소망부서 찬양 순서

오늘은 어버이주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엡6:2~3)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 교회는 소망부 주최 경로잔치를 갖는 등 아버지의 사랑을 되새기는 행사를 갖는다.

오늘 I·II·III부 예배 시작 전에는 예배당 입구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감사와 존경의 표시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 드린다.

소망부 경로잔치는 12시 30분부터 '사랑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3층 소망부집회실에서 개최된다. 이 잔치는 제 1부에서 소망부를 지도하는 우심화 목사의 메시지와 부장이

남호 장로의 인사말에 이어 제 2부 행사로 고등부에서 준비한 성극과 유년부 학생들의 재롱잔치가 공연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교회의 어른들께 기쁨을 안겨 드리고 여생을 하나님께 더욱 영광돌릴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마련한 순서이다. 소망부에선 오늘의 잔치를 위해 그간 우리 교회에 등록된 70세 이상의 어른 120여 분 모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찬양예배시간엔 소망부 회원들이 특별순서를 마련하여 지난 두 달 간 열성적으로 연습한 찬양도 선뎀다.

이 찬양을 위해 우리 교회 최연장자들로 구성된 소망부에서는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시 68:3, 4)는 말씀에 따라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훈련을 가져온 바 있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소망부 부감 박두영 집사는 "노인들이 계단을 오를 때 부축해 드리거나 식당에서 자리를 양보해 드리고, 식사 후 물 한 컵 떠다 드리는 등의 작은 일들부터 실천하여 노인들이 소외감을 가지는 일 없이 대접받고 존경받는 분위기에서 남은 생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일평생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신 어른들을 공경하고 대접하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작민음가정 · 전도대상자 초청 만찬회

다음 달 16일 삼정호텔서... 황수관박사의 특별강연도

가족초청만찬이 6월16일 오후 6시부터 삼정호텔에서 열린다.

이 만찬은 작민음 가정의 가족(가족중 믿지 않는 사람)이나 기도 중에 있는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여 성도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며 자연스럽게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 만찬회는 강석우 집사의 사회로 1부 경건회(말씀 이종윤목사)에 이어 2부 시간에는 요즘 신바람건강학으로 유명한 황수관박사의 특별강연도 마련, 관심을 모은다.

참가를 원하는 성도들은 주보와 함께 배포된 초청대상자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주 헌금함에 넣으면 된다.

김치 동문회 4차총회 12-13일 개최

한국교회갱신연구원(김치) 동문회(회장 차정운 목사) 제 4차 총회가 12일(월)과 13일(화) 1박 2일간 광성교회훈련원(경기도 가평)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12일 오후 7시 30분에 오성중 박사(대학교회 목사)가 '신약의 율법관'이라는 제하의 특강을, 13일 오전 9시 30분에 이종윤 목사가 '21세기 교회지도자'라는 제하의 강의를 한다. 동문회원들은 강의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현재의 목회 방향과 동문회의 활동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갖는다.

다. 또한 12일 밤 친교와 기도회 시간을 통해 동문 상호간의 목회정보 교환과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동문간의 유대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 총회에서는 새 임원진 선출과 새로 회원이 된 목회자들을 환영하는 순서도 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동문회는 1994년 3월에 창립되었으며 동문회원의 자격은 한국교회갱신연구원이 주최하는 목회자신학세미나 네 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에게 주어진다.

✦ 순례자 컬럼 ✦

오늘이 중요하다

미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은 더욱 중요하다. 먼 훗날 성공하면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이들도 있지만 미래는 아직 현실이 아니다.

훗날에 대한 바램이 오늘을 힘차게 할 수도 있으나 오늘의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훗날을 기대하는 것은 소중한 오늘까지 잃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미래 지향적 공상가나 과거에만 연연하는 복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된다.

오늘이 미래보다 더 중요하다. 오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는 사람이라야 내일도 기대할 수가 있다. 오늘 싱싱하게 푸른 잎이 돌아있는 살아있는 과수에서 내일의 풍성한 실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을 도피하거나 내일로 미루며 핑계하는 사람은 시들어버린 과수에서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외친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민족의 가슴에 오늘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야곱은 열 두 아들들에게 예언 기도를 하면서 다른 아들보다도 요셉에게 긴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어려서부터 대단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1. 포도나무와 그 가지들

야곱은 요셉에게 그냥 무성한 가지라고 하지 않고 "샘 곁의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심기운 포도나무의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샘 곁에 있는 포도나무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흔히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포도나무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져와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새 땅에 옮기신 것입니다(시 80:8 - 16, 사 5:1 - 7, 렘 2:21, 겔 15:1 - 8, 19:10 - 14, 호 10:1).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선택된 포도나무였으나 불행하게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포도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요셉의 가지는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22절).

요셉은 자기 가족과 히브리인들만 위한 포도나무가 아니고 다른 백성을 위한 풍성한 포도나무입니다. 요셉은 애굽까지 복을 받게 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 대한 예언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의 후손 가운데는 구약의 15명의 사사 중 5명의 사사가 있고, 여호수아, 기드온, 아비멜렉, 야일, 입다, 사무엘도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을 인하여 그 자손들까지도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무성함에 대한 예언 중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들이 야곱에 의해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24, 25절). 요셉의 무성함의 비결이나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자는 열매를 맺어도 쓴 열매를 맺을 뿐입니다. 요셉은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습니다(24절). 전능자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므로 그의 힘이 건강하며 팔에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야곱의 전능자, 목자, 이스라엘의 반석, 네 아비의 하나님, 전능자의 다섯 가지로 말했습니다.

(1)야곱의 전능자

야곱은 연약하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았던 야곱은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전능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시편의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

요셉, 무성한 가지



이종운 목사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힘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다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쫓박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이다 네 아비의 축복이 네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창 49:22 - 26)

니다. 시편 132편 2절과 5절에 '야곱의 전능자', 시편 46편 7절과 1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그가 영리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나고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2)목자

야곱은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괴로운 일인 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번덕스럽고 고집스러우며 어리석어서 신실하게 돌봐주어도 애정을 돌려줄 줄 모르는 동물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바로 양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못한 양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목자가 되시어 그의 일평생을 지키

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3)이스라엘의 반석

반석은 든든한 기초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의 생각과 노력과 희망과 삶을 세워야 합니다. 요셉은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세우고 그에게로 가서 피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야곱의 전능자'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반석이 되실 것을 이미 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4)네 아비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어머니가 기도하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험을 잘 보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효자가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까만 그보다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자녀들을 두었다면 이보다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5)전능자

엘 샤다이(El Shaddai)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세우실 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창 17장). 엘 샤다이는 전능자로 번역되었는데 요셉에게 임하는 복이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말입니다.

3. 야곱의 축복

야곱은 자신이 받은 복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은 복보다 더 크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이같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부족한 면이 많았던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더 많이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아들에게, 이삭은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야곱은 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으니 이것만 보아도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향하여 자신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26절).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는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누리는 것 보다 하늘의 복을 받는 영적인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래야 할 축복은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영원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 드립니다.”

김혜련 (집사, 12교구)



4월 5일 새벽 사고를 당하신 어머니 (김선미 권사)는 주일을 지나 사고 이들이 지난 월요일에야 입원을 하셨다. 무릎뻐가 부러졌다는 진단이 나

왔고 다리에 깁스를 하셨으나 “큰 통증 없이 더 큰 일 안 당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라고 하시며 감사를 잊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일한 신앙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정이 되면 어김없이 엎드려 기도하시는 어머니. 당신의 나약함 자체 보다는 주님의 일을 더 강건하게 감당할 수 없음을 아쉬워 하시며 “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라고 말씀하실 땐 옆에서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요즘은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머리를 감겨 드리고 몸을 닦아드려본다. 내 평생 40년 동안 한 번도 안해 본 일이다. 내 손에 닿는 어머니 살결은 그간 내가 생각했던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다. 탄력을 잃어 우글쭈글해진 어머니의 살을 만지며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고 떨리는 음성을 숨기려 말머리를 돌리곤 한다.

그간 어머니께 한 번도 감사한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지 못했다. 마음 속으로만 생각해왔었는데 <순례자>의 지면을 빌어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어머니! 이제라도 어머니의 남은 삶을 주님 위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편히 모시겠습니다. 하루 속히 건강 되찾으시어 주님의 일,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많이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무장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항상 결

에서 뵈을 수 있는 것, 너무도 든든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한 뜻깊은 하루

임희춘 (집사, 3교구)



지난 4월 30일 서울교회 자원봉사자 5명은 서초구청 사회복지부직원, 주변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용인에서 장애인들과의 뜻깊은 하루를 보냈

다. 전날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서 걱정이 되었으나 당일에는 하나님께서 쾌청한 날씨와 모든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순조롭게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다.

막연하나마 내 손길을 필요로 하는 데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져왔지만 막상 직접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은근히 걱정이 밀려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겪어보니 그 모든 것은 부질없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미 떠나기 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필요한 힘들을 예비하셨고 은혜 주시려고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었다. 감사가 마음 속에서 터져 나왔다. 영적으로는 그들보다 더 보잘 것 없는 내게 너무나 값진 기회를 주시는 것에 감사하였고 앞으로의 내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렸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새로운 삶의 의욕과 영적인 힘을 얻고 돌아오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더불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할 우리의 뜻이라는 생각을 감히 해 본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많은 배려로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상인들이 누리는 자유로움과 행복감을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온전한 육신과 건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단지 신체적으로 불편한 그들에게 주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부족한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이루어졌으면 하고 기도해 본다.

아침을 열면서

고운화 (권사, 1교구)

싱그러운 햇살과
이슬 머금은 풀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아침
하늘의 만나를 막기 위해
우리는 모였습니다.

타오르는 갈증 만큼
내려지는 양식들
비어있는 공간 만큼
용기와 희망과 생명의 기쁨을
또다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고
찢기어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빠알간
카네이션보다도
더 큰 사랑을
가슴에 보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강건함을 주시되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형통함을 주옵소서.

조그마한 답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생활 속의 이야기

“항상 기뻐하자”라고 가훈을 정하고선...

송길원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소장)

“항상 기뻐하자. 언제나 기도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어느 해엔가 신년 초 성경말씀에 따라 이와 같은 가훈을 정했다.

그 해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나는 내 두 아들에게 훈계를 했다. “항상 기뻐하라. 알겠니?” 그리고 연구소로 출근을 했는데 점심 무렵에 방학 중인 아이들이 연구소엘 들렀다. 오랜만에 아빠의 사무실을 찾아 온 큰 녀석이 어항 속의 열대어에 산소를 공급하는 스위치

를 켜는 게 그만 컴퓨터의 스위치를 끄고 말았다.

오전 내내 작업한 자료들이 순식간에 날라가 버린 것이다. 어째 이런 일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큰 녀석도 당황이 되었던지 어쩔 줄 몰라하며 내 앞에 우뚝 서서 “아빠, 죄송해요.”라고 했다. 아무리 참으려 해도 얼마나 화가 나던지... 한 대 때리기라도 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항상 기뻐하자”고 교훈하지 않았던가.

황당하고 내키지 않았지만 “항~상 기뻐하자”라고 말하고는 아이들을 돌려 보냈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킨 다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래, 다행히 만나질 작업이었지 온종일 한 것은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실제적인 설교를 할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그런 마음으로 다시 작업을 하고는 늦게 퇴근을 했다.

아이들은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들고 온 큰 아들의 일기에는 그날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아빠가 매우 화를 내실 줄 알았다. 그러나 화를 안 내셨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참 이상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나는 우리집 가훈이 좋다.”

그 해 그 가훈 덕에 짜증도 덜 내고 신경질도 줄이면서 한 해를 살 수 있었다.

“웃음은 곧 세계관이다”라는 말이 있다. 바른 세계관이야말로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각박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위해서라도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야겠다.

한 통계에 따르면 사람의 70평생 삶 가운데 웃는 데에는 겨우 88일만이 소요된다고 한다. 내 생활이 화 내는 데는 익숙하고 기뻐하는 데는 인식하지 않은 지 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제 3회 '한교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

표정

지난 5일(월)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서울교회 온 가족이 함께 어우러졌던 시간! 이번 축제에 단연 눈길을 끈 것은 응원전. 백팀은 특별히 준비한 악기들과 팀웍이 돋보였으며 청팀은 전통양식의 의상을 차려 입은 대학부 회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응원을 했다. 결국 응원전에서는 청팀이 이겼고 전체 우승은 10점 차이로 백팀이 차지하여 승리의 깃발을 가져갔다.



제 8차 김치 신학세미나 박두

몽골,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등 4개국 목회자가 참가하게 될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가 한 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김치 실행위원들은 그간 매주일 찬양예배 후에 모임을 갖고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진행을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기도회를 가져왔으며 이제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행위원들은 이번 주 동안 공항영접에서부터 등록, 숙박, 식사 등 참가자들을 맞을 준비를 완료하고 예배실과 강의실의 동시통역시설을 갖추는 일 등을 마치고, 자원봉사자 모임 등을 가질 예정이다.

▶어버이 주일에

십대가 원하는 이상적인 부모

대부분 십대들은 '돈을 잘 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게 해 주는' 부모를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들은 부모들이 꾸짖는 것이 냉정하기만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십대들이 그들 부모에게 원하는 것을 간추리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경청하려는 배려

십대들은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하는 사람을 원한다. 십대들은 종종 자기 부모에게는 비밀로 하면서 다른 어른들에게는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기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반면,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자기 역할에 빠져 자기 아이들을 다스리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2. 친구들에 대한 존중

십대들은 부모가 자신의 친구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욕감을 느낀다고 한다. 만일 자녀의 친구가 문제아임이 드러나면 그것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어야지 비합리적인 규칙을 만들어 친구 사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3. 인격적인 대우

십대들은 다른 형제들과 자신이 비교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비교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규칙을 세우도록 함으로써 조율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부모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목회자 · 교우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12일(월) 전 · 현직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총장협회 주최 "나라를 걱정하는 대학총장들의 모임"에 참가.
- * 이번생 집사(12교구, 청년부 부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정책실장으로 승진 발령.
- * 오늘 봉사자를 위한 점심식사는 박철훈 장로 가정에서 제공.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교회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신 '가정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2. 김치세미나에 참가할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지도자를 위해
3.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4. 소망부의 영적 부흥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